

3·1운동 옥고 90년만에 재판기록 찾은故 김정수씨 가족

“독립운동 명예 회복 하늘서 기뻐하실 것”



〈김씨의 딸 정자씨〉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길 자주 들었는데...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27일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인 고(故) 김정수씨의 딸 정자(76·서울시 강남구)씨는 최근 부친의 항일운동 사실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국내 한 연구소가 1919년 3월 10일 광주 독립운동 당시 일본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기도 증거 불충분으로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된 김씨 등 항일운동가 48명의 재판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본보 25일자 7면〉 김씨는 “열심히 살아 보니 이렇게 좋은 일도 있다”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아버님께 전해드리기 위해 조만간 묘소에 다녀와야겠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과거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의 부끄럼 없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김씨는 그러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목이 메이는지 말을 잊지 못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1919년 3월 10일 광주의 부동교(현 남구 사동) 밑에서 학생들과 모여 인근 작은 장터로 갔었다. 나주군 평동면 연산리(현 광주시 광산구 평동)에 살던 김씨는 당시 광주농업학교 2학

독립당 나주지부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민들의 민족의식을 북돋웠다. 특히 김 구 선생은 항일운동에 전념하던 김씨에게 자신의 친필이 담긴 ‘김 구 일지’와 ‘족자’(簇子)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김 구 일지’ 첫 페이지엔 ‘정수군, 열심히...’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하지만 김씨는 30여년 전 독립운동을 하고도 재평가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김씨의 딸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자료가 나타난 만큼 더 큰 욕심은 추호도 없다”며 “이 자료를 찾아 명예회복을 해 준 분께 정말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다 3개월 이상 옥살이를 한 경우 독립유공자로 적극 선정한 만큼 김씨에 대한 이번 자료도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경남 하동 항일독립투쟁사 연구소(소장 정재상)는 지난 25일 광주 3·1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는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로 1년간 옥고(獄苦)를 치렀다. 김씨는 출소 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후 김씨는 김 구 선생의 한국

김구 선생 한국독립당 나주 지부장으로 활동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김씨의 딸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자료가 나타난 만큼 더 큰 욕심은 추호도 없다”며 “이 자료를 찾아 명예회복을 해 준 분께 정말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다 3개월 이상 옥살이를 한 경우 독립유공자로 적극 선정한 만큼 김씨에 대한 이번 자료도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경남 하동 항일독립투쟁사 연구소(소장 정재상)는 지난 25일 광주 3·1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는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로 1년간 옥고(獄苦)를 치렀다. 김씨는 출소 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후 김씨는 김 구 선생의 한국



‘성취도’ 답안지 대조

27일 목포교육청 직원들이 최근 성적조작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재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인촌 장관 “F1 경주장 건설비 지원”

500억 반영...문광부 적극성 띠기 시작

포틀러원(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정부가 F1 경주장 건설비용 지원 등의 협조를 약속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던 F1 대회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경기특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F1대회 지원법을 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F1 지원법은 다음 회기에서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회의에서는 F1대회에 대

한 정부지원 내용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F1대회 개최권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대신 경주장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회의에서 “F1대회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올해 추경예산안에 F1대회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이에 대해 “지원법안에도 정부가 시설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지원방식을 바꾸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수용의사를 밝혀 경주장 건설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앞서 전남도는 경제위기로 민자유치가 어려워 지자 경주장 건설비용 중 일부인 880억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같은 입장은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태도가 크게 바뀐 것 이어서 향후 F1대회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뤄지면 경주장 건설에 쓰일 예정이었던 3천400억원 규모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조달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에 요청해 왔던 7년간 1천130억원의 F1대회 개최 권료 총액 규모 안에서 정부의 시설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일단 530억원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도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 반영과는 상관없이 F1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F1대회 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여옥, 국회서 여성들에 폭행당해

한나라당 전여옥(사진) 의원이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여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께 전 의원이 본청 1층에서 출입구로 향하던 중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여·69) 씨 등 5~6명의 여성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맞았다. 전 의원은 국회 의사실에서 응급처리를 받았지만,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 의원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 | |
|------------------|-------------|
| 28(土) | 3/1(日) |
| | |
| 맑은 뒤 흐림 1/12℃ | 맑음 1/13℃ |

News

- 전남 건설협 총회 총동 ②
- 침·뜸 미국서도 통했다 ③
- 3·1절 전국마라톤 코스 ⑭

Books

- 세상을 바꾼 여인들 ⑧

Entertainment

- ‘간간한 여자’ 유호정 ⑦
- 블록버스터 속편의 공습 ⑩

Wellbeing

- 화순 옥림 행복 전원마을 ⑤

스타벅스 할아버지 점원 ⑨

매월 2일은 치아검진의 날

충치 예방은 매 2달마다 정기적으로 치아검진
30분만 투자하면 30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매월 2일은 치아검진에 참여하고 건강하세요!

광주광역시 치과약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약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약사회

내일 아침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열립니다

호남마라톤의 대명사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3월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14-15면>

동호인·직장 단체 등 총 1만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오전 9시10분 폴코스 참가자들 출발에 이어 10분 간격으로 하프, 10km, 5km 부문 달리기 시작된다.

이번 대회는 월드컵경기장 서문을 통과해 서구문화센터, 서창교차로, 서창파출소, 칠석동 등을 거쳐 반환점 남평교를 돌아오는 폴코스 구간과 서창교차로에서 돌아오는 하프, 풍금사거리 인근서 돌아오는 10km 코스로 진행된다. 또한 5km 구간은 월드컵경기장 서문을 나와 중흥마을 사거리, 원광대 한방병원, 좌봉터널을 거쳐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교통불편 양해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풍물놀이·특공무술공연 등 식전행사와 골차기·2인 줄남기·홀라후프 게임·제기차기 등 경기 중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시상식은 각 부문별로 시간을 달리해 갖게 된다. 한편 대회 당일인 3월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스로 이용되는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 통제가 이뤄져 시내버스 10개 노선이 조정된다. 노선변경버스는 철단20, 풍암61, 상무64, 대촌69, 대촌71, 진월77, 진월78, 송정99, 대촌170, 대촌270 이다. 특히 벽진동 소재 연료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입로가 통제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시내버스 노선 임시 변경

| 노선번호 | 현행 ▶ 변경 |
|-------|---|
| 철단20 | 철단~영주사거리~월드컵경기장 ▶철단~영주사거리(→화정남초교→혁기이파트→영주주공) |
| 풍암61 | 세하동~대동고~문화전당 ▶매월동~대동고~문화전당 |
| 상무64 | 세하동~5·18자유공원~비엔날레전시관 ▶상무지구~5·18자유공원~비엔날레전시관 |
| 대촌69 | 철석~전남고입구~양동시장역 ▶상무지구~전남고입구~양동시장역 |
| 대촌71 | 구소~매월동~양동시장 ▶매월동~양동시장 |
| 진월77 | 노대~대동고~세하동 ▶노대~대동고~매월동 |
| 진월78 | 이동~대동고~세하동 ▶이동~대동고~매월동 |
| 송정99 | 용봉마을~문춘~양동시장역 ▶용봉마을~문춘 |
| 대촌170 | 도래~대촌동사무소~대인광장 ▶대촌동사무소~대인광장 |
| 대촌270 | 매월동~전남고입구~구소 ▶매월동~전남고입구~상무지구 |

※벽진동 소재 연료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08:00~13:00까지 진입로가 통제